

송기인(신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¹⁾) 2차 구술

1. 구술자: 송기인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10월 6일
5. 구술장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자택
6. 구술분량: 02분 51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88년 13대 총선과 부산 동구 출마과정

구술자 :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전화도 했겠지만 나도 (출마자를 추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 모임에서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 그랬다. 김광일은 하겠다 그러데. 김광일은 이의가 없었어요. 김광일뿐인 거야. 네 사람 추천해달라고 나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 그래가 두 번째 만나서 노무현한테 다시 얘기를 했지. 국회 가봐라 말이지. 부산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중앙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다음 대답이었는데 그 자리, 현장 대답이 아니었고. 그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 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운동 그건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다’ 는 거야.

그러자,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을 했지. 전화연락으로. 노무현이 남구(에 출마)하겠다고 그랬는데. 노무현이 다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제가 동구에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야. 무슨 얘기고 말이지. ‘네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하필이면 동구면 그때는 허삼수는 그때 정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길 할려느냐 그러니깐 ‘제가 국회의원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선거운동을 할려고 하는데 선거운동 멋지게 할려면 그렇게 붙어야 되겠다’ 는 거야. 근데 지금 다 신문에 다 발표되고 다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안하면 별로 그런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게 내가 최성묵 목사²⁾보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해 2년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요청을 고사하고 교회로 복귀했다. 송기인 신부가 재직하는 동안 과거사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봉암 사건 등 57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나 재심을 권고했다.

2) 부산 중부교회 목사. 부산 재야운동의 원로로 부마항쟁과 87년 6·10항쟁 등 부산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다.

고 갔다 오라고 그랬어. 미안해 가지고 전화로는 못하고 와이에스(YS)한테 좀 가봐라 말이지. ‘뭐냐?’ 그래서 그래 그 일(때문)이라. 최성목 목사한테 갔다 오라 그러니깐 그래 뭐 그러자고 가서 진짜 바꿔 가지고 왔는 거야. 그래갖고 동구에 출마를 했는데 우리는 다 떨어질 거로 알았지 뭐. 실제로 그때 우리나라는 누구도 그지? 허삼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할 때야.

그런데 이제 선거운동을 한다고 저기 범내골 쪽 저기 뭐야 고관 쪽에 사무실 하나 얻었는데. 내, 사무실 찾아가봤다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더라고. 그리고 방이 두칸데 안에가 노무현이 있는 모양이라. 내가 돈 십만(100,000)원을 살짝 주고 왔다. 노무현은 못 주고 그 옆에 사무실에 췌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어쨌든 후원금을 이제 내고 난 돌아왔는데. 아 그게 당선된 거 있지 그지? 그, 이럴 수도 있다 말이지. 그래가 그렇게 갔는데. 가고 나서도 참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거 잘못해가 저 고생하면, 그랬는데

■ 구술자 주요이력

1938. 부산 출생

1972. 사제서품

1974. 부산인권선교협의회 회장

1983. 당감성당 주임신부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회장

1987. 미국 보스턴 대학 연수

1989.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1993. 부산교회사 연구소 소장

199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1995.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2005. - 200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때 변호인단에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노 대통령에게 ‘유스토’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주기도 했다. 자서전

<운명이다>는 이때를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82쪽)” 고 기록하고 있다. ‘부산·경남 민주화운동의 대부’ 로 불리며 참여정부 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